데스크 시각

민선6기 1년, '상생' 성적표는

장 필 수
정치부장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6기가 어느덧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말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 윤장현 호와 이낙연 호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것이다. 시·도정에 대한 자평일 텐데 자신들에게 몇 점씩이나 줄지 자못 궁금하다.

민선6기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떠할까.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 점수는 다를 것이다. 1년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민선6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통 핵심 키워드인 '상생'에 대해서는 되돌아 볼 시점이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상생 협력'을 공동 키워드로 내세웠다. 출범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발전연구원 통합,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무안공항 활성화 등 14개 상생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같은 달에는 폭을 더 넓혀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북 순창에서 만나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가동된 것은 6년 만의 일로 이 자리에서 8건의 상생 발전 의제를 마련했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 여수엑스포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주태권도원 등을 연계한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사업 등이 그것이다.

광주·전남 상생 절반의 성공

호남권 시·도지사가 상생 협력에 어깨동무를 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내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등 호남 쪼개기 정책이 촉발한 불필요한 경쟁이 지역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경험도 작용했다.

지금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의 상생 협력에 대해 시·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 입장을 표명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상생 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다. 호남권 3개 시·도 가운데 광주·전남 간 상생 협력 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광주·전남 간에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은 지난 1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와 전남도의 메르스 극복을 위한 공동 협력문 발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성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이 지사는 광주시청으로 달려가 윤 시장과 공동으로 "메르스에 잘 대처해 광주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다짐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다.

광주·전남 상생 협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이뤄낸 것을 들 수 있다. 시·도는 14개 상생 협력 과제 가운데 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제1호 과제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한 결과 8년 만에 통합 발전연구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합 발전연구원은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원장 선임 과정을 거쳐 9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발전연구원 통합은 시·도의 공동정책 개발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세부 사항에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협력 과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에 제2 남도학숙을 건립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 하겠다.

민선6기 상생의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을 줘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통상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상생 협력은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시·도 간 이해가 상충되는 핵심 협력 과제는 아직 거론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제 해결에 성패 달려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된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이낙연 지사는 취임 초기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의 무안 이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사업도 난제 중 하나다. 한전이 500여 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하자 시·도 간 공다툼을 위한 물밑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도 상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민선 6기 들어 호남의 최대 화두가 된 상생. 어젠다 설정이나 1년간의 성과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주춧돌을 잘 놓은 만큼 이제부터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광주공항 이전 같은 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때 비로소 상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네팔 지진에서 배우다

박 행 순
전남대 명예교수·카트만두대 객원교수

네팔에서는 지난 4월 25일,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사망자가 8700 여명, 상해자는 2만 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수는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횟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매일 수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을 겪고 있다. 얼마 전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진이 200회를 웃돌고 산사태가 2000 건 이상이었다.

지진 후 일주일을 넘기면서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구출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정부는 인명구조를 포기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피해복구와 재건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외국 구조대의 철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결정 열흘 뒤인 5월 12일, 진도 7.4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첫 지진으로 균열이 생긴 가옥들이 두 번째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또 다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그간 4500 명 이상의 구조대가 투입되었으나 구출된 인원은 고작 17명이었다.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활동은 놀라웠다. 즉시 임시대책본부를 마련하고 한국에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쌀, 담요, 생필품들을 구입하여 원근 각처를 다니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누어주었다. 심지어 여성들을 위한 생리대까지 만들어 보냈다. 지금은 초기 구호품 지원 단계를 넘어서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우기에 대비하여 천막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함석 가건물 설치를 하고 있다. 네팔 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가건물 설치에 참여한 80 여명의 봉사자들 가운데 우리 교민이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필자도 얼마 전에 선교사들과 함께 구호품을 가지고 신두팔촉의 '코다리'를 방문하였다. 신두팔촉은 두 번째 지진의 진앙지로서 지각의 요동을 고스란히 받았던 곳이다. 신두팔촉 전역에는 멀쩡한 건물이 거의 없었고,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는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희생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스산한 정적 속에 공포를 느꼈다.

지진 발생시, 협곡 위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들이 강을 따라 형성된 민가와 운행 중이던 차량들을 덮쳤다. 집채만 한 바위가 집 앞으로 굴러 떨어질 때 얼마나 큰 굉음을 냈을지, 지각과 산을 뒤흔드는 그 요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지진 후 3주가 지났는데도 길가에는 버스와 트럭, 승용차들이 음료수 캔처럼 구겨진 상태로 방치되어있어서 그 날의 참혹함을 일깨워 주었다.

지난 6일자, 네팔의 주요 일간지인 'The Himalayan' 영문판에서는 '지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로 열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인명구조와 구호물품 수납은 단일창구로 한다. 둘째, 외국 구조요청에 앞서 즉각적인 필요에 대한 사정평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재난관리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 외에도 재난관리훈련기관의 창설과 비상사태 구호품 저장소, 자료 수집을 위해 지리적으로 세분화된 정보체계, 지진희생자 확인카드 발부 등을 열거하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들은 어떤 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

주변국의 활동으로부터도 배울 것들이 있다. 어느 날 공항에 나갔다가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 봉사자들의 입국장면을 보았다. 일장기와 '지진구호 물품'이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적힌 박스들을 몇 사람이 운반하고 있어서 일본 구호 팀이 입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단체복을 입은 일본 봉사자들이 줄지어 행진하듯 걸어 나오는 모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중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눈에 띄었으나 우리나라는 많은 구호물품들을 가져오는데도 박스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중국은 한자가 새겨진 중장비들을 제공하고 곳곳에 '중국은 네팔과 함께 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텐트들을 설치하였다. 이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첫 지진 후 신문에서 '참치와 마요네즈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쌀과 설탕,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카트만두대학 본부 차고에는 매일 구호품이 실려 나가기가 바쁘게 외국에서 보내는 물품들이 다시 쌓인다. 대부분이 쌀이다. 네팔을 향한 세계인의 온정을 느끼게 하는 이 차고는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뒤주, 화수분을 연상케 한다.

많은 사상자를 낸 몇 곳을 제외하고 네팔인들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면서 산 사람들은 내진 설계된 새 건물을 세우고 보다 나은 세상을 살 것이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기 고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은 서남해이다

김 호 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고종황제는 1897년 대한제국임을 선포한다. 그해 목포는 개항을 해서 1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1년 한·중 수교가 열린 그해에 목포시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중국 롄윈강(連雲港)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롄윈강시는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 차관을 빌려서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했고, 목포시는 IBRD 차관을 빌려서 북항에 차관주택을 건립했다. 롄윈강시 해운국은 차관상환을 완료하고 중국 4대 항만이 됐고, 목포시는 차관주택을 재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다.

중국 간쑤성 성도(省都)인 란저우(蘭州)는 수많은 크레인이 하늘을 찌른다. 란저우는 여기도 공사, 저기도 공사다. 비행장 근처에는 국가급 신도시인 란저우 신취(新區) 조성공사가 한창이고, 공항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고속철도역에서는 인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그렇게 중국 최하위 소득도시를 바꿔가고 있다.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허브다. 란저우→우루무치 고속철도는 개통됐고, 란저우→시안 노선도 뚫린다.

한국도 '일대일로'의 물류망을 타야한다. 한국이 서해안 도시인 목포나 평택에서 열차 페리로 롄윈강에 연결해서 TCR(중국 횡단철도)을 이용하는 계획이다.

열차페리란 육상에서 열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해상에서는 열차페리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인데 페리선에 선로가 있어 열차를 직접 진입시켜 운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비에 운송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상하이에서 주문한 샴푸가 3일 만에 '역 직구'되어 배송이 되고 있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사는 사람이 스마트 폰으로 'T몰'(www.tall.com)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국 한방샴푸를 주문했다. 대금은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국제특송(EMS) 주문할 경우 배송까지 10일 걸렸던 기간을 3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단말기(PDA)와 차이니아오 물류센터와 현대와 제휴한 알리바바 물류체인 결과다.

중거리 수송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철도는 현대수송 수단의 효시였다.

또한 철도의 기술혁신으로 속도가 경제성이 되면서 철도는 우리나라 국가산업으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되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주장해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남북철도 연결 장애 요인 등 통일이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 트럭과 시장상인들이 물건을 사고팔려는 사람 숲을 형성해 북적거린다. 이처럼 중국의 꿈 '일대일로'는 초대형인 인프라 프로젝트다.

육로로는 시안→신장→우즈베키스탄→중앙아시아→독일→유럽, 바닷길로는 취안저우→말레이시아→인도→케냐→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로테르담 등으로 뻗어간다.

중국이 이런 서부 대개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화하는데 물류 산업, 무역이 국제화되어 첨단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물류로 연결되는 첨단 산업이 될 것이다.

21세기 물류발전의 골든타임은 지금부터라고 한다. 전자 상거래와 '옴니 채널'(omni-channel) 등이 확산되면서 상품구매에 온·오프라인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에서 중국 알리바바의 연매출이 17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 물류기능도 더욱 확대되어 온라인 구매자에게 상품을 최종 전달하는 기능은 물류수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골드먼삭스가 2050년이면 국민소득 9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이라며 르네상스가 남해안에서 꽃필 것이다라고 했다. 부산이 항구도시의 어머니 역할을 할 때 남해안 시대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목포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신라시대 장보고는 청해진을 건설해서 경제특구를 만들고 삼국무역을 했다. 롄윈강에는 신라인 숙성촌을, 웨이하이(威海)에는 적산법 화원을 만들었다.

나는 60년 전 꼬마시절부터 목포에 있는 상해관이나 인해관 거리에서 자장면 냄새를 맡으면서 자라왔다. 언젠가는 이런 거리가 차이나타운으로 불을 훤히 밝힐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중국 롄윈강과 목포 신항만 부두를 열차 페리로 연결하여 물동량이 신외항에 쌓이고 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물류 배후지가 끝없이 펼쳐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社 說

메르스 때문에 소외계층 밥까지 굶어서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환자야 두말할 것 없겠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사람이 끊긴 시장 상인들도 힘들고, 관광객이 끊긴 여행사나 항공사도 힘들다.

요즈음 아마도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터.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의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메르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상당수 지자체가 무료급식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소외계층들은 이로 인해 '생활고'와 함께 '메르스 공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매주 목요일 우산 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점심)을 운영해 오던 '사랑의 밥차'만 해도 그렇다. 지난 11일부터 메르스 감염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무료 급식이 중단됐다.

메르스가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는 소외계층의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밥그릇도 빼앗아갈 정도로 메르스가 무섭긴 무서운 놈"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는 한 노인의 말이 이들의 처지를 실감나게 한다. 기자가 둘러본 현장은 평소 같으면 배식 차량 앞에 100m 이상 길게 줄지어 북새통을 이뤘겠지만 이날은 한산했다고 한다.

목포시도 매주 한 차례씩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서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급식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 무료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27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급식만큼은 중단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체 방안을 먼저 마련했어야 했다. 적어도 메르스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무료 급식이 어렵다면 도시락이라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뜻한 행정'의 실천이 아쉽다.

광주시립예술단 곪은 곳 있다면 도려내라

광주시립예술단에 대한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턴 채용 비리, 각종 수당 부정지급,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사례비 수수 등.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집 의원(비례)의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이러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립예술단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사 실시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검토 차원에 머물 게 아니라 당장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둘러싼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문화행정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시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문화계 일각에선 '시립예술단=무풍지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등 모두 7개로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한해 예산만 인건비 포함 125억 원이나 된다. 하지만 작품 수준과 단원들의 실력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래 대부분의 국·공립 예술단이 엄격한 오디션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다. 광주 시립예술단은 그동안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여건을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시립예술단은 한 도시의 문화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특히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감사로 여러 의혹을 낱낱이 밝혀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제에 법인화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개밥바라기

요즘 해가 지면 푸르스름한 박명(薄明)의 서녘 하늘에 밝은 별 두 개가 눈에 들어온다. 대각선으로 늘어선 두 별 중 위쪽이 목성이고 아래쪽이 금성이다.

목성은 황도 12궁(宮)을 매년 하나씩 옮겨가는 까닭에 '세성'(歲星)으로 불린다. 금성은 워낙 밝아 간혹 미확인 비행물체(UFO)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뜰 때는 '개밥바라기' 또는 '어둠별'로, 새벽에 동쪽 하늘에 자리할 때는 '샛별'로 불린다.

금성의 별칭인 '개밥바라기'는 작가 황석영의 성장소설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작가는 소설 후기에서 '개밥바라기' 유래에 대해 "식구들이 저녁밥을 다 먹고 개가 밥을 줬으면 하고 바랄 즈음에 서쪽 하늘에 나타난다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목성과 금성은 밝은 별로 보일 수 있지만 중세 유럽의 한 과학자에게는 당시의 우주관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다. 400여 년 전,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주인공. 그는 손수 만든 소형 굴절망원경으로 분화구 가득한 달을 비롯해 목성의 4대 위성(이오·유로파·가니메데·칼리스토), 금성의 위상(位相) 변화 등을 관측했다.

그렇게 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천동설(天動說) 대신 지동설(地動說)을 확신하게 됐다. 결국 그는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정을 나서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한다.

미르(은하수), 살별(혜성), 좀생이별(플라이아데스 성단) 등등. 우주 관련 우리말도 재미있지만 금성보다 '샛별' 혹은 '개밥바라기'라는 별칭에서 조상들의 해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오는 20일에는 꼭 해진 후 서녘 하늘을 바라보시길…. 목성과 금성 사이 아래쪽에 초승달이 다소곳이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바쁜 발걸음 멈추고 지상에서 우주 교향악단의 연주 한 부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낮에는 해 뜨고/ 밤에는 별이 총총한/ 더없이 큰/ 이 우주를 그냥 보라고 내주었습니다."(김광섭 '인생' 중에서)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